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57호 현대불교
2009년 11월 11일(음 9월 25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5

악과 선을 다 흡수해서 둘 아니게 응용할 수 있어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오늘 저녁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오?' 이라고 할 때 '산 입에 거미줄 칠까. 다 살게 되겠지. 먹게 되겠지.' 하고 부지런히 나가서 찾아보면 그날 굶지 않아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에요. 지금은 거기에 신경을 좀 안 쓰지만 그때에 이 절이 저 안쪽 요사채만 있고 아주 가난했을 때죠. 그런데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의 자손이 뭘 훔치러 왔어요. 그래서 불잡아서 물어보니까 그런 지경이예요. 그래서 쌀 한 가마 반인가 있는 거를 다 몽땅 줬어요. 식구가 여럿이고 살 수가 없었니까요. 주고선 사시 마지마시 공양을 올릴 것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말입니다. 올리기 전에 말이에요. 쌀 세 가마가 들어 옵니다. 그게 내가 한 겁니까? 부처님이 계시면 될 거고 부처님이 안 계시면 안 될 거고 만사가 태평하죠. 뭐. 그렇게 생각 안돼요? 하하하. '내 자불이 있으면 될 거고 없으면 안되고 그럴 거니까 너 만이 다 알아서 해라.' 하고 말하고 하세요. 뭐든 지요.

질문자5(여):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스물세 살에 냇가에서 빨래하다가 발에 병이 나서 아팠습니다. 아팠는데 율해가 육십, 환갑입니다. 그런데 아님, 이놈의 발이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낫고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당장 다리를 자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 젊은 나이에 다리를 자르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아저씨가 데리고 왔어요. 와서 아무리 좋다는 약을 다 써도, 나아가기도 또 한 2년 되면 도로 재발하고 3년 되면 또 도로 재발하고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원에 내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다. 그러나 우리 큰스님 한 번 친견하고 발이 또 나왔어요. 나아가지도 한 이십 일을 발이 그렇게 또 아팠습니다. 아주 잘, 물도 어떻게 못 데워 먹을 정도로 발이 그렇게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또 스님한테 와서 친견을 하시는 스님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발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내가 이 선원에 나온 지가 한 3년 되었거든요. 그런데 발이 지금 완전히 내 마음으로는 나온 것같이 잘, 상태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러니 우리 스님한테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말로 감사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큰스님: 나온 것 같다고 하지 마시고, 나온 거죠.



그림 · 최주현

질문자5(여): 나왔어요. 예. 하하, 말을 할 줄을 모르니까... 나왔어요. 발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 스님한테 참, 이 감사한 말씀을 진짜 올려야 되는데 못가지고 이 장내를 나오기가 그렇게 뭐해서 참 오늘은 아주 진짜 주인공한테 맡기고 이라고 나왔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래서 그 원리가, 내 자불 주인공에다 맡기고 '너만이 할 수 있어.' 할 때 대뇌로 올라가서 사대로 통신이 되면 내면 속의 생명들이 작용을 해준다 이런 뜻이예요. 어떠한 약조건이라도 다 작용이 된다 이 소리죠. 그런데 그렇게 모두 아마 안되나 봐요. 하하하, 하여튼 편안하게 사십시오.

질문자5(여): 스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손녀가 지금 세 살 먹었는데 어찌 엄마 아빠 소리만 부르지 말을 못합니다. 스님, 어째서 그런답니까? 말을 못하니까 엄마 아빠도 마음이 조금 불안해해서 아들 때느리한테도 이 공부를 좀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얼른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도 저로서는 주인공한테 맡기고 '주인공, 네가 이끌어. 하여튼 우리 아들 때느리 들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고 여하튼 이끌어. 이

공부 좀 하게 이끌어.' 그리고 지금 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게 얘기가 세 살 먹어도 말을 못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스님,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큰스님: 하하하, 아니, 참 보살님이 대견합니다. 둘 아닌 도리를 말할 수 있으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모습은 없어질지언정 그 둘 아닌 차원이야 어찌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살아나갈 바입니다.

질문자5(여):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리고 여린에 말 못하는 것은 열심히 둘 아니게 관하고 또 저희 엄마 아빠도 거기에 똑같은 인과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관하면 더더욱 좋고요. 그렇게 해서 차차 말을 하게끔 해 보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질문자5(여): 예, 감사합니다.

질문자6(여):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스님 법어집을 공부한 지가, 열추 십 년 다 돼 갑니다. 처음에 한 십 년은 천지도 모르고 기복적으로 이렇게 참, 빛도 모르고 하다가 법화경에서 처음으로

이제 일분십 도리를 알아가지고 그걸로 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100%로 안 풀리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랬는데 큰스님의 법어집이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걸 지금 공부한 지가 한 십여 년 다 돼 갑니다.

그러나 제가 부산으로 나주로 지금 용인에까지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에서 잠깐 선원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절에 다니면서 잠깐 한 번씩 다니다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만 다니려고 원을 세웠는데도, 또 어떻게 아들하고 인연이 된 스님이 계시고 해서 서울에 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너무나 감사해서 진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큰스님 법어집을 진짜 세 번 네 번을 읽으면서 느끼는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 하나하나를 다 썰 정도로 그렇게 속속들이 너무나 멋있게 공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여기에 잘 안 와지는 것도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은 오는데 오늘 꼭 여기 나온 이유 때문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앉아계십니다. 영국인 시

아도씨라고 우리 아들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 오신 지가 한 이십여 년 되었는데 고향에서는 안 살고 여기서 사십니다. 사업상도 그렇고요. 그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폐암이 걸려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들보고 "오늘 좀 모시고 오너라." 하면서 큰스님 법회 있으니까 우리 가서 한번, 설명 몸을 바꾸더라도 진짜 큰스님의 큰 뜻을 알고 가서야만이 앞으로 또 다른 몸 받지 않고 잘 저거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해서 지금 아들하고 저분이 뒤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참 주제 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스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이 안 통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일러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들이 말이 통하고 아들도 불법을 잘하고는 있으나 저도 바쁘고 또 100% 믿는 그런 처지는 못되고 하니가 오늘 이렇게 모시고 나왔는데 큰스님, 불쌍히 여기셔서 한마음 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 말 하려고 나왔습니다. 큰스님.

그리고 큰스님,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정말로 보살행을 하고 싶는데 그게 몰락 녹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좀 설한 소리를 누가 하면, 많이 설한 게 있으면 그런 걸 제가 빨리 웃으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 나가면서도 너무 설할 때는 그것이 잘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몰락 녹이고 싶는데 그게 참 입맛대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스님: 당신 공부하는 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하하하, 폐암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자기가 모든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저 나무 씩이 자기 뿌리 믿듯이, 붙어 있는 거니까 진짜로 믿고 거기를 관하면 항상 먹는 거나 지금 보호해주는 사람이나 삼합이 다 일치되고 또 이 폐가 그렇다고 관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뇌로 해서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그러면 폐의 소임을 맡은 그 직원들이 다 작용해 주고 그 간의 소임맡은 직원들이 또 간에서 작용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이고 뭐고 하나도 불지 않죠. 거기는 직접 직접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찾고 발견할 게 없는 거거든요. 자기 뿌리 기 때문에! 그렇게 진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마음이 항상 바깥으로 떠돌거든요. 갔다가

26면으로 계속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탕화 · 금금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편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임원공고

종 정 정화 총무원장 해 봉

원로 원장	구담	원로 위원	덕운				
교육부원장	월암	사정 원장	법안	비구니원장	아산	비구니위원	자인
총무부장	법륜	문화부장	근홍	사회부장	해통	규정부장	호산
포교부장	법보	홍보부장	능현	감찰부장	봉정	호법부장	혜원
재무부장	법련						
문화국장	법봉	호법국장	현오	감찰국장	벽송	포교국장	원공
홍보국장	정오	기획국장	도경	교임단장	도건		
제10교구총무원장	해광	제6교구동부총무원장	운오	제3교구총무원장	상원		
제28교구총무원장	지광	제26교구총무원장	묘진	제13교구총무원장	지광		
제6교구서부총무원장	지웅						

종도 해원 선허 법산 적광 보현 명광 법광 해담 도광

포교원 인덕화 연화행 해영심 교임단장포교원 대법행

법사 보광 향원 자비행 보광 염상 도일 대운 정법 능오 성문 백상 백연화

종도일동



(사)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 경북 포항시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연봉사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